

“소외받는 이웃에 노래로 용기 심어요”

♥ 2014 희망을 주는 사람들 ② ‘음치교정의사’ 김은희씨

“음악에 귀 기울이고 템포를 맞춰야지. 다른 생각 하지 말고 집중하세요.”

지난 30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김은희 음치클리닉. 40대 여성인 엄부자를 내면서 노래를 부르는 한 중년 남성에게 목소리를 높였다. 소리에 대한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기 위한 나름의 조치였다. 머리를 긁적이며 겸연쩍은 표정을 짓던 이 남성은 이내 음감을 바로 잡았다.

광주에서 음감 교정 등을 통해 희망을 심어주는 이른바 ‘음치 교정 의사’가 있다. 주인공은 김은희 음치클리닉 원장인 김은희(여·46)씨. 그녀는 요즘 조금 과장하면 ‘분(分) 단위 일정’을 소화할 만큼 강의와 행사로 바쁘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김씨가 꼬박꼬박 쟁기는 이가 있다.

지난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오디션 프로그램인 ‘넘버 원 에이블’(No.1 able)에 참가해 대상을 받은 박영탁(69·시각장애 1급)씨다. 당시 김씨는 박씨의 멘토 역할을 하면서 인연을 맺게 됐는데, 박씨가 올해 본격적으로 가수의 길을 걷게 되면서 또 다시 멘토를 자처한 것이다.

그녀는 “세 살 때 흥역을 앓은 뒤 시력을 잃게 됐다는 것을 그 부모로부터 전해들었는데, 몸이 불편한데도 노래를 포기하지 않고 끌까지 부르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제가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희망이 없는 삶이 무엇인지, 노래를 부르지 못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 아픔인지를 그 누구보다 잘 안다. 그녀의 학창시절 꿈은 통기타 가수였지만 20대 중반 결혼하

면서 꿈을 접어야 했다. 상실감에서 벗어나 희망을 되찾기까진 긴 고통의 시간을 감내해야 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긴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온 그녀는 10년 전부터 자신을 위해 음악을 다시 시작하면서 삶의 활력소도 생겼다. 지난 2011년 세미 트로트곡인 ‘우연히’를 발표하면서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가수의 꿈도 이뤄냈다.

병원·복지관 찾아 다니며

음치클리닉으로 음감교정

가수 꿈 이루고 봉사까지

현재 그녀는 전남대 평생교육원과 동구지역 주민자치센터 노래교실 출강까지 나갈 정도로 꽤 유명인사다. 하지만, 음악을 다시 시작한 뒤부터 광주·전남지역 병원과 복지관을 정기적으로 찾아가 노래 공연을 선보여준다. 특히 최근엔 (사)행복문화사업단을 통해 인연을 맺은 한 베트남 이주여성을 위해 ‘친정엄마 김치’라는 노래도 준비중이다.

광주에서 음감 교정 등을 통해 희망을 심어주는 이른바 ‘음치 교정 의사’가 있다. 주인공은 김은희 음치클리닉 원장인 김은희(여·46)씨. 그녀는 요즘 조금 과장하면 ‘분(分) 단위 일정’을 소화할 만큼 강의와 행사로 바쁘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김씨가 꼬박꼬박 쟁기는 이가 있다.

지난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오디션 프로그램인 ‘넘버 원 에이블’(No.1 able)에 참가해 대상을 받은 박영탁(69·시각장애 1급)씨다. 당시 김씨는 박씨의 멘토 역할을 하면서 인연을 맺게 됐는데, 박씨가 올해 본격적으로 가수의 길을 걷게 되면서 또 다시 멘토를 자처한 것이다.

그녀는 “세 살 때 흥역을 앓은 뒤 시력을 잃게 됐다는 것을 그 부모로부터 전해들었는데, 몸이 불편한데도 노래를 포기하지 않고 끌까지 부르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제가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희망이 없는 삶이 무엇인지, 노래를 부르지 못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 아픔인지를 그 누구보다 잘 안다. 그녀의 학창시절 꿈은 통기타 가수였지만 20대 중반 결혼하



광주시 서구 치평동 ‘김은희 음치클리닉’ 강단에 선 김은희 원장이 통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진도 관매도 0.5㏊ 산불 끄는데 17시간 걸렸다

소방안전센터·의용 소방대원·장비 없어 ‘속수무책’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내 400개 섬 소방대책 시급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관매도 야산 0.5㏊를 태운 화재를 끄는데 무려 17시간이나 걸렸다. 제한된 이동 수단 등 섬 지역 특수성이 소방 장비·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게 원인으로, 대형 산불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형편이다.

지난 31일 오후 6시 50분께 진도군 조도면 관매도 산 220번지 일대에서 화재가 발생, 광복동 0.5㏊를 태우고 17시간 만인 1일 오후 2시에 진화됐다. 산불 발생 지역이 주민 주거지에서 500m에 떨어진 지역이지만 바람 방향이 민가와 반대 방향으로 불었고

크게 번지지 않아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0.5㏊로 비교적 피해 규모가 적은 산불임에도 진화하기까지 17시간이나 걸린데다, 관매도가 ‘해승숲’을 비롯, 천연의 경관을 보유한 국립공원 인점을 고려하면 차제에 해야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관매도의 경우 등집펌프 20대, 소형 펌프 1대 등 산불진압장비를 갖추고 있지만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관매도 현장관리센터 상주 직원 2명을 제외하면, 소방안전센터, 출소도 없어 화재 발생시 대응에 취약한 실정이다.

여기에는 의용 소방대원도 없고 60대 이상 고령이 대부분인 250여명 주민들이 나서서 산불을 끄기도 쉽지 않은 게 소방 당국 설명이다. 이날도 배로 30분 거리인 조도면에서 산불 진압이 가능한 소방 인력 20여명이 풍랑주의보를 높이고 도착해 진화 작업에 나섰을 정도다. 주민들 사이에서

‘불이 나면 알아서 꺼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관매도 뿐 아니라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 포함된 전남지역 섬 400개도 비슷한 상황이다.

전남도내 주민이 살고 있는 섬만 296개에 달하지만 이를 섬에 예산 등의 이유로 소방 장비·인력을 보유하

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이 때문에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천혜의 관광 자원을 갖고 있는 섬의 훼손을 막기 위해서라도 취약한 소방 대응 능력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아동학대는 중대 범죄” 최고 무기징역

정부가 ‘가정 내 훈육’ 영역이라고 여겨 소극적으로 대처했던 아동학대 범죄를 앞으로는 ‘중대 범죄’로 간주해 적극 개입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및 피해아동 보호 절차를 대폭 강화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됐

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에는 아동학대 치자, 아동학대 중상해 및 신고 의무자의 학대 범죄 등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아동학대 치자죄의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 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연합뉴스

함평 읍내파출소 수갑 풀고 달아난 20대 검거

‘도주 방지 매뉴얼’ 무시 출입통제장치 작동 안해

파출소에서 수갑을 풀고 달아났던 20대 젊도 피의자가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스스로 마련한 ‘피의자 도주 방지 매뉴얼’이 전혀 지켜지지 않으면서 비롯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1일 오후 1시 50분께 함평군 함평읍 버스터미널 인근 한 여관에서 도주한 젊도 피의자 김모(27)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여관 주인 몰래 빙客栈에 들어가 있다 숙박업소를 수색중인 경찰에 검거됐다.

김씨는 하루 전인 지난 31일 새벽 0시 50분께 도로에 세워진 차량에서 현금 2만원과 신용카드가 든 지갑을 훔친 혐의로 붙잡혔다가 파출소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대로 달아났다. 김씨는 당시 손을 뒤로 한 채 수갑을 차고 있었지만 수갑을 풀고 달아났다. 경찰은 “손이 아프니 수갑을 좀 끌어달라”는 김씨 요청을 받고 느슨하게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도주 사건의 경우 ‘피의자 도주 예방을 위한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경찰은 지난 2012년 12월 경기도에서 성폭행 혐의로 붙잡힌 노영대(34)씨가 수갑을 풀고 도주한 사건 이후 ‘피의자 도주 방지 매뉴얼’을 마련, 전국 경찰에 내려보낸 바 있다.

서울역 분신 광주 출신 40대 남 숨져

지난 31일 오후 서울역 앞 고가도로 위에서 분신한 광주 출신 40대 남성이 끝내 숨졌다.

이씨는 분신 직전 쇠사슬로 손등을 묶은 채로 ‘박근혜 사퇴’, 특검 실시라고 적힌 플래카드 2개를 고가 밑으로 내걸고 시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발견된 이씨의 수첩에는 이씨가 직접 쓴 것으로 보이는 ‘안녕하십니까’라는 제목으로 17줄 분량이 글이 적혀 있고 “집을 지우고 가서 미안하다. 슬퍼하지 말고 행복하게 기쁘게 갔다고 생각해라. 엄마를 부탁한다”는 내용도 발견됐다.

. /김지기자 dok2000@kwangju.co.kr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일하는 마트에서 생필품 ‘아금아금’

○…자신이 일하는 마트 창고에서 생필품을 훔친 60

대 여성이 경찰서행.

○…1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전모(여·64)씨는 지난달 3일 오후 7시 40분께 광주시 서구 풍동동 A마트 창고에서 쇼핑카에 달려 있던 참치캔,

고추장 등 2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훔쳤다는 것.

이씨는 분신 직전 쇠사슬로 손등을 묶은 채로 ‘박근혜 사퇴’, 특검 실시라고 적힌 플래카드 2개를 고가 밑으로 내걸고 시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발견된 이씨의 수첩에는 이씨가 직접 쓴 것으로 보이는 ‘안녕하십니까’라는 제목으로 17줄 분량이 글이 적혀 있고 “집을 지우고 가서 미안하다. 슬퍼하지 말고 행복하게 기쁘게 갔다고 생각해라. 엄마를 부탁한다”는 내용도 발견됐다.

. /김지기자 dok2000@kwangju.co.kr

고추장 등 2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훔쳤다는 것.

○…경찰조사결과 이 마트의 미화직원인 전씨는 생활 형편이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창고 감시가 소홀한 틈에 범행을 저질렀는데, 물건을 숨겼다.

이씨는 미혼으로 광주 한 상가에서 배달 일을 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는 1주일 전 가입한 보험의 수급자를 동생 명의로 바꿔놓고 휴발유, 틱낫돌, 틱낫돌, 압축연료 등을 미리 준비해뒀다.

이씨는 미혼으로 광주 한 상가에서 배달 일을 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는 1주일 전 가입한 보험의 수급자를 동생 명의로 바꿔놓고 휴발유, 틱낫돌, 틱낫돌, 압축연료 등을 미리 준비해뒀다.

이씨는 미혼으로 광주 한 상가에서 배달 일을 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는 1주일 전 가입한 보험의 수급자를 동생 명의로 바꿔놓고 휴발유, 틱낫돌, 틱낫돌, 압축연료 등을 미리 준비해뒀다.

이씨는 미혼으로 광주 한 상가에서 배달 일을 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는 1주일 전 가입한 보험의 수급자를 동생 명의로 바꿔놓고 휴발유, 틱낫돌, 틱낫돌, 압축연료 등을 미리 준비해뒀다.

이씨는 미혼으로 광주 한 상가에서 배달 일을 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는 1주일 전 가입한 보험의 수급자를 동생 명의로 바꿔놓고 휴발유, 틱낫돌, 틱낫돌, 압축연료 등을 미리 준비해뒀다.

이씨는 미혼으로 광주 한 상가에서 배달 일을 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는 1주일 전 가입한 보험의 수급자를 동생 명의로 바꿔놓고 휴발유, 틱낫돌, 틱낫돌, 압축연료 등을 미리 준비해뒀다.

이씨는 미혼으로 광주 한 상가에서 배달 일을 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는 1주일 전 가입한 보험의 수급자를 동생 명의로 바꿔놓고 휴발유, 틱낫돌, 틱낫돌, 압축연료 등을 미리 준비해뒀다.

이씨는 미혼으로 광주 한 상가에서 배달 일을 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는 1주일 전 가입한 보험의 수급자를 동생 명의로 바꿔놓고 휴발유, 틱낫돌, 틱낫돌, 압축연료 등을 미리 준비해뒀다.

이씨는 미혼으로 광주 한 상가에서 배달 일을 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는 1주일 전 가입한 보험의 수급자를 동생 명의로 바꿔놓고 휴발유, 틱낫돌, 틱낫돌, 압축연료 등을 미리 준비해뒀다.

이씨는 미혼으로 광주 한 상가에서 배달 일을 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는 1주일 전 가입한 보험의 수급자를 동생 명의로 바꿔놓고 휴발유, 틱낫돌, 틱낫돌, 압축연료 등을 미리 준비해뒀다.

이씨는 미혼으로 광주 한 상가에서 배달 일을 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는 1주일 전 가입한 보험의 수급자를 동생 명의로 바꿔놓고 휴발유, 틱낫돌, 틱낫돌, 압축연료 등을 미리 준비해뒀다.

이씨는 미혼으로 광주 한 상가에서 배달 일을 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는 1주일 전 가입한 보험의 수급자를 동생 명의로 바꿔놓고 휴발유, 틱낫돌, 틱낫돌, 압축연료 등을 미리 준비해뒀다.

이씨는 미혼으로 광주 한 상가에서 배달 일을 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는 1주일 전 가입한 보험의 수급자를 동생 명의로 바꿔놓고 휴발유, 틱낫돌, 틱낫돌, 압축연료 등을 미리 준비해뒀다.

이씨는 미혼으로 광주 한 상가에서 배달 일을 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는 1주일 전 가입한 보험의 수급자를 동생 명의로 바꿔놓고 휴발유, 틱낫돌, 틱낫돌, 압축연료 등을 미리 준비해뒀다.

이씨는 미혼으로 광주 한 상가에서 배달 일을 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는 1주일 전 가입한 보험의 수급자를 동생 명의로 바꿔놓고 휴발유, 틱낫돌, 틱낫돌, 압축연료 등을 미리 준비해뒀다.

이씨는 미혼으로 광주 한 상가에서 배달 일을 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는 1주일 전 가입한 보험의 수급자를 동생 명의로 바꿔놓고 휴발유, 틱낫돌, 틱낫돌, 압축연료 등을 미리 준비해뒀다.

이씨는 미혼으로 광주 한 상가에서 배달 일을 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는 1주일 전 가입한 보험의 수